
2015년 창원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요약)



2015. 12. 31.

창원대학교

차 례

I . 자체평가 개요	1
1. 자체평가의 근거	2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2
3. 자체평가의 목적	2
4. 자체평가의 방향	3
5. 자체평가 결과 활용	3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3
II .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4
1. 평가지표 체계 및 방법	5
2. 자체평가의 절차	11
3. 자체평가 추진경과	13
IV . 종합 및 제언	14
1. 평가성적 분석	15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21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23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의 근거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3. 자체평가의 목적
4. 자체평가의 방향
5.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I.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의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평가)
 -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 창원대학교 학칙 제98조(자체평가)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 대학 외부평가제도의 중요성 증대
- 대학 외부평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대학의 대외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모형 구축 필요
-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 정착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3. 자체평가의 목적

- 내부 자체 진단을 통해 우리대학의 현 수준을 파악하여 지표 값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관리 체제 정착
- 주요 대외평가 준비 및 정책사업 선정가능성 증대 등 대학의 대외 경쟁력 강화
- 대학의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여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

4. 자체평가의 방향

- 주요 대외평가 지표를 평가 준거로 활용하여 대내외평가 및 정책 사업에 대비
- 주요 외부평가를 포괄하는 통합적 성과지표로 평가항목 개선
- 타 대학과 비교가능한 대학정보공시의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 평가주기별 추세분석 및 비교를 위해 공통지표*를 선정하여 평가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평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수혜율, 교육비 환원율, 연구비 수혜실적 등 17개 지표

5. 자체평가 결과 활용

- 지표 값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현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 공유에 활용
- 대학의 학사구조 및 정원조정 개선에 반영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구분	소속	성명	비고
연구위원장	기획처장	조용권	
연구부위원장	기획부처장	김형국	
연구팀장	법학과	오창석	
연구위원	경영학과	차병철	
연구위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권오설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1.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2. 자체평가의 절차
3. 자체평가 추진경과

Ⅱ. 대학 자체평가 추진체계

1.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 체계

□ 기본 원칙

- 주요 대외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표 활용
- 대학이 노력하여 개선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지표
- 정량적 측정 및 자료 획득이 가능한 지표
-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표

□ 평가지표 구성

- 주요 대외평가 및 정책사업 지표*, 대학정보공시 항목, 2011년 실시 평가 항목 등을 근간으로 현재 시점의 대외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 대학평가, ACE, LINC, CK 등
- 타 대학과 비교 가능하여 우리대학의 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대학자체평가인 학과평가 및 부서평가 결과 반영 지표

□ 평가지표 체계

- 평가영역은 각각의 영역에서 평가지표로 구분되며, 평가영역은 대학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영역에 해당됨
- 평가지표 체계 : 8개 평가영역, 48개 평가지표
 1. 학 생 : 4개 평가지표
 2. 교 원 : 3개 평가지표
 3. 교육여건 : 7개 평가지표
 4. 연 구 : 10개 평가지표
 5. 재 정 : 5개 평가지표
 6. 산학협력 : 11개 평가지표
 7. 국제화여건 : 6개 평가지표
 8. 기 타 : 2개 평가지표

나. 평가방법

□ 평가대상 기간

- 기준년도 : 2014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 단, 평가지표별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표평가 점수 및 등급 부여방법

- 지역중심대학 순위 비교, 전체 국립대학 순위 비교 2가지의 방법으로 지표별 점수를 구함
- 평가지표 별로 5등급 구간으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이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를 취득점으로 하고, 등급 구분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정함

- 지역중심대학 비교의 경우 : 산출 값이 거점대학*을 제외한 19개 국립대학 순위 기준으로 1위~4위 A등급, 5위~8위 B등급, 9위~12위 C등급, 13위~16위 D등급, 17위~19위 E등급을 부여함

*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 국립대학 비교의 경우 : 산출 값이 28개 국립대학 순위 기준으로 1위~10위 A등급, 11위~15위 B등급, 16위~20위 C등급, 21위~25위 D등급, 26~28위 E등급을 부여함
- 등급점수는 A등급은 배점의 100%, B등급 80%, C등급 60%, D등급 40%, E등급 20%로 함

- 산출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지표작성의 일관성, 명료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정의서 작성

- 지표정의서는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정의서를 근간으로 작성
- 각종 대학평가에 사용된 기준 지표정의를 준용하여 작성

□ 28개 국립대학 현황

거점국립대학

연번	학교명	비고
1	강릉원주대학교	
2	강원대학교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	경북대학교	
5	경상대학교	
6	공주대학교	
7	군산대학교	
8	금오공과대학교	
9	목포대학교	
10	목포해양대학교	
11	부경대학교	
12	부산대학교	
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	서울시립대학교	
15	순천대학교	
16	안동대학교	
17	전남대학교	
18	전북대학교	
19	제주대학교	
20	창원대학교	
21	충남대학교	
22	충북대학교	
23	한경대학교	
24	한국교원대학교	
25	한국교통대학교	
26	한밭대학교	
27	한국체육대학교	
28	한국해양대학교	

다. 평가지표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결과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 점	지표산식	평가 방법	비고
1. 학생	1.신입생충원율	50	정원내 입학자수(명)/정원내 모집인원(명)×100 ※ 정보공시 산식	정량	구조개혁평가, 기관평가인증
	2.재학생충원율	50	재학생 수/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100 ※ 정보공시 산식	정량	구조개혁평가, 기관평가인증, ACE, CK
	3.중도탈락학생비율	30	학부 재적학생수/학부재적생 수×100 ※ 중앙일보평가 산식	정량	중앙일보평가
	4.학부생비율	20	학부 재학생(명)/학부 재학생수(명)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명) ※ ACE 산식	정량	ACE
소계		150			
2. 교원	5.전임교원확보율	50	전임교원 수(명)/편제정원(명)×100(%)	정량	구조개혁평가,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ACE, CK
	6.전임교원인당 학생수	20	학부+대학원 재학생 수/전임교원 수 ※ 중앙일보 산식	정량	중앙일보평가
	7.직원인당 학생수	30	(학부 정원내외+대학원)재학생수(명)/직원수(명)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소계		100			
3. 교육 여건	8.취업률	50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자))×100 ※ 정보공시 산식	정량	구조개혁평가,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ACE, LINC
	9.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학점)/총 개설 강의학점(학점)×100(%)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구조개혁평가, 중앙일보평가
	10.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 총 개설 강의학점 × 100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11.강의 규모의 적절성	20	0.4×(20명이하규모강의비율)+0.3×(21~50명 규모강의비율)+0.2×(51~100명규모강의비율) +0.1×(101~200명규모강의비율)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구조개혁평가, 중앙일보평가
	12.소규모강의	10	20명 이하 개설 강좌(수)/총 개설 강좌(수)×100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13.대규모강의	10	101명 이상 개설 강좌(수)/총 개설 강좌(수)×100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14.도서관 연간자료구입비	20	자료구입비(천원)/(학부 정원 내외+대학원) 재학생수(명)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소계		150			
4. 연구	15.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2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건수) / 전임교원 수(명)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산식	평가방법	비고
	16.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20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건수) / 전임교원 수(명)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17.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20	저역서수(건수)/전임교원 수(명)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18. 전임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	20	(교내연구비+교내대응자금)(천원)/전임교원수(명) (교외연구비+교외대응자금)(천원)/전임교원수(명)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19. 기술이전 건수	10	기술이전 계약건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증, LINC
	20. 기술이전 수입료	20	기술이전 수입료 ※ 정보공시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LINC
	21. 국내특허 출원	10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조사연도에 등록 및 출원된 건 ※ 정보공시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증
	22. 국내특허 등록	10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조사연도에 등록 및 출원된 건 ※ 정보공시 기준	정량	
	23. 국외특허 출원	10	개별 국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정보공시 기준	정량	
24. 국외특허 등록	10	개별 국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정보공시 기준	정량		
소계		150			
5. 재정	25. 교육비 환원율	50	총 교육비(천원)/등록금수입총액(천원)×100(%)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구조개혁평가,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ACE, CK
	26. 장학금 지급률	50	교내외장학금(천원)/등록금수입총액(천원)×100(%) ※ 교내외장학금 및 등록금수입총액 학부만포함 ※ 교외장학금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은 제외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27. 시간당 강의료 지급단가	10	(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 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28. 납입금 비율	20	납입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세입×100 ※ 중앙일보평가 기준	정량	중앙일보평가
	29. 기부금 비율	20	기부금 총액(천원)/세입총액(천원)×100 ※ 기관평가인증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소계		150			
6. 산학협력	30.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10	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활용으로 2014.3.1.~2015.2.28. 기간에 입금된 운영 수익금의 총합. 산학협력단 회계, 교비회계, 국고회계, 기타회계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의 총액 ※ 정보공시 기준	정량	LINC
	3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10	1.0×(채용형 전임교원 수)+0.25×(채용형 비전임교원 수)+0.2×(지정형 전임교원 수) ※ LINC 산식	정량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산식	평가 방법	비고
	32.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원 비율	10	산학협력단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수/산학협력단 전체 직원 수×100 ※ 정보공시 기준	정량	중앙일보평가, LINC
	33.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20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재학생 수×100 ※ 정보공시 기준	정량	
	34.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10	사업단 참여학과의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재학생 수×100 ※ 정보공시 기준	정량	
	35. 창업 강좌 수	10	창업 강좌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LINC
	36. 창업 재정 지원	20	창업동아리 지원 + 학생 창업 기업 지원 + 기타 학생 창업 지원 금액 ※ LINC 기준	정량	
	37. 창업공간지원	10	창업동아리 공간 + 예비창업 전용공간 + 학생창업 기업공간 ※ LINC 기준	정량	
	38. 창업지원인력	10	창업 전담교수 + 창업 전담 행정 인력 ※ LINC 기준	정량	
	39. 교수인당 산업체 공동연구과제 수	20	민간산업체, 연구소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수/전임교원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40. 교수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20	민간산업체, 연구소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비 총액/전임교원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소계	150			
7. 국제화여건	4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30	외국인 전임교원 수/전체 전임교원 수 × 100 ※ 정보공시 기준	정량	CK
	42.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10	{외국인 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100 ※ 중앙일보평가 산식	정량	중앙일보평가
	43. 교환학생 비율	10	{해외 파견 교환학생 수+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재학생 수)×100 ※ 중앙일보평가 산식	정량	
	44. 해외 파견 학생 수	20	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CK
	45.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20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 대학교 학생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4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0	1-(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전체 유학생 수) ×100 ※ CK 산식	정량	
소계	100				
8. 기타	47. 교사시설 확보율	30	기본시설(m)+지원시설(m)+연구시설(m)/기준면적(m) ×100(%)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구조개혁평가, 기관평가인증
	48. 기숙사 수용률	20	수용인원(명)/(학부 정원 내외+대학원(주간) 재학생 수(명)×100 ※ 기관평가인증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소계	50				
합계	1000				

2. 자체평가의 절차

우리대학의 자체평가는 (1) 자체평가의 준비단계, (2) 자체평가 자료의 분석 단계, (3) 자체평가 연구보고단계,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별로 자체평가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1 자체평가의 준비단계

우리대학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자체평가 기획위원회는 대학 규정에 의거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본부 처·국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도서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소속	성명	담당역할
위원장	기획처장	조용권	총괄
위원	교무처장	어석홍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설정
위원	학생처장	김정태	"
위원	사무국장	윤병일	"
위원	대학원장	정재욱	"
위원	인문대학장	이윤상	"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안성수	"
위원	경상대학장	추교완	"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일곤	"
위원	공과대학장	김병관	"
위원	예술대학장	김한기	"
위원	메카트로닉스대학장	하판봉	"
위원	도서관장	권요한	"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
- ② 자체평가연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③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대학관리 중점과제의 추진을 총장에게 자문
- ④ 대학구성원들의 자체평가 참여 유도

(2)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단과대학의 교수로 구성하였다. 실무위원으로는 기획평가과 평가팀 직원이 담당하였다.

구분	소속	성명	담당역할
위원장	기획처장	조용권	평가총괄
부위원장	기획부처장	김형국	평가업무총괄
연구팀장	법학과	오창석	평가, 평가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총괄
연구위원	경영학과	차병철	, 평가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권오설	"
실무총괄	기획평가과장	정영태	실무총괄
실무위원(간사)	기획평가과	류규열	자료수집 및 분석자료 작성
실무위원	"	정빛나라	"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편람의 개발과 연구
- ② 자료수합을 위한 서식개발 및 자료 분석
- ③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집필
- ④ 자체평가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

2. 2 자체평가의 실시단계

자체평가는 8개 평가영역별로 해당 영역의 연구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주요 대외평가 및 정책사업 평가지표 분석

둘째, 평가 지표별 관련부서 파악 및 업무 협조 요청

셋째, 자료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정리

넷째, 정보공시 항목 자료 수집 및 정리 <타 국립대학과의 비교표 작성>

다섯째, 평가위원은 각종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2. 3 자체평가의 보고단계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자체 개발된 모형(안)을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자체평가모형에 따라 담당영역별로 보고서의 내용을 집필 하여 종합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우리대학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에 탑재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대학의 수요자들에게 공시하였다.

2. 4 자체평가의 활용단계

자체평가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과 평가 종료 후에 우리대학의 강점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 활용한다. 점차적으로 강점은 부각시켜 대학의 발전방향으로 이어지게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우리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자체평가 추진경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대학자체 평가의 진행일정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진행일정 및 과정

일 자	진행일정 및 과정
2015. 11.	○ 2015년 창원대학교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
	○ 자체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팀 구성
2015. 12.	○ 자체평가 모형 의견수렴
	○ 자체평가 기본계획 및 결과활용(안) 심의 :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 자체평가 모형 확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2016. 1.	○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 사이트 탑재
	○ 학내 전부서 배포



종합 및 제언

1. 평가성적 분석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1. 평가 성적 분석

『2015년 창원대학교 자체평가』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은 평가 종료 후에 우리대학의 강점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정책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강점은 부각시키고, 문제점은 보완 개선하여 대학의 발전방향으로 이어지게 하여 향후 우리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는 각 평가 항목별로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산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 우수 : 75점 이상	▶ 보통 : 50점 이상 75점 미만	▶ 미흡 : 50점 미만
---------------	----------------------	---------------

1) 학생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4	150	96	64
19개 지역중심대			118	78.7

- 학생에 관한 평가 지표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학생비율, 학부생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중 학생 신입생 충원율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감소하는 추세로 경쟁률이 높은 만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재학생 충원율은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 간 이동을 대비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중도탈락학생비율은 28개 국립대학 비교 순위가 21위, 19개 지역중심대학 비교 순위는 12위로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취업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생지도상담의 비율을 높여 학생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교원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3	100	52	52
19개 지역중심대			46	46

- 교원에 관한 평가 지표로는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직원1인당 학생 수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영역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28개 국립대학 비교 52점, 19개 지역중심 국립대학 비교 46점으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립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13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국립대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교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8개 국립대학 기준으로 11위, 19개 지역 중심대학 기준으로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교원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지표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교육여건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7	150	126	84
19개 지역중심대			92	61.3

- 교육여건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강좌 비율, 대규모강좌 비율, 도서관 연간자료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다.

- 취업률은 대학교육의 결과이자 최종 산출물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2013년도 54.7%와 비슷한 수준으로 28개 국립대학 기준으로 A등급인 9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타 국립대학들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 19개 지역중심대학에 비하여 낮은 것은 전임교원확보율이 19개교 지역 중심대학의 평균 74%에 비해 낮은 수준인 69.5%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임교원확보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소규모 강좌 비율은 2013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국립대학 기준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강좌 비율은 2013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타 국립대학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학과별로 정원 및 현원에 맞는 적절한 강의규모를 산정하고 개설 가능 강좌 수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강의규모의 적절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도서관 연간자료구입비는 우리대학 2014년도 81.2천원으로, 28개 국립대학 기준으로 현재 18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8개 국립대학 평균인 98.3천원 및 19개 지역 중심대학 평균인 94.5천원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예산확보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4) 연구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10	150	100	66.7
19개 지역중심대			100	66.7

- 연구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 SCI급 논문실적, 저역서 실적, 교내외 연구비, 기술이전 건수 · 수입료, 국내외 특허 출원 · 등록 건수로 구성되어 있다.

- 국내·외 학술지 1인당 논문게재 실적의 경우, 우리 대학교 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과의 순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것은 타 대학의 실적 하락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임.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연구비 증액 등 연구실적의 상승을 위한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 교내·외 연구비 실적 또한 2013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국립대 평균과 비교하면 하위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실적은 201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타 국립대학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특히, 국외특허 등록은 최근 2년간 0건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건수/수입료 또한 건수는 201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수입료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국 국립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5) 재정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5	150	92	61.3
19개 지역중심대			88	58.7

- 재정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납입금 비율, 기부금비율로 구성 되어있다.
- 교육비 환원율은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타 국립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대학의 발전기금이 타 대학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발전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등록금 인상, 산학협력단 회계 증액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 장학금 지급률은 타 국립대학의 평균정도의 수준임. 상위수준 향상을 위해 대외장학금 확보 및 교육부 정책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국립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대학의 시간강사 중 2등급(전업 시간강사 이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등급 강사의 비중을 높이면서 강사등급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 납입금 비율은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기부금 비율은 2013년에 비해 비율이 떨어졌고 타 대학의 평균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학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확보가 필요하다.

6) 산학협력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11	150	130	86.7
19개 지역중심대			126	84

- 산학협력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원 비율,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창업 강좌수/재정지원/공간지원/지원인력,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공동연구비로 구성되어 있다.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원 비율,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등 산학협력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난다.
- 창업 강좌 수는 2013년 3개에 비해 2014년 7개로 대폭 상승하였지만, 타 국립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외부전문가 초청 및 학년별 맞춤형 창업 교육 과정 개설 등 지표 값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창업 재정 지원은 2013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타 국립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다양한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국제화여건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6	100	54	54
19개 지역중심대			64	64

- 국제화여건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교환학생 비율, 해외 파견/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2013년 2명에서 2014는 1명으로 줄었고,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및 교환학생 비율도 2013년에 비해 하락하였음. 해외 파견 학생 수 2013년 86명에서 2014년 76명으로 줄어든 반면,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타 국립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 국제화여건 영역은 평가지표 전반의 결과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의 국제화 역량은 글로벌 역량강화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특정 지표의 개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된 지표까지도 실적 관리가 중요한 만큼 미흡한 지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8) 기타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2	50	46	92
19개 지역중심대			42	84

- 기타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교사시설확보율, 기숙사수용률로 구성되어 있다.
- 교사시설확보율은 타 국립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숙사수용률은 201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으로써 타 국립대학교 비교했을 경우 조금 낮은 수준이다. 우리대학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1) 평가결과 종합분석 (SWOT)

○ 내부 강점요인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지표 등이 전국 국립대 와 비교해 중상위 수준에 있으며,
- 교수 및 연구지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학술지(대회) 논문 게재(발표) 실적 등이 소폭 향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산학협력 영역 중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원 비율,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등의 지표가 전국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외에도 저역서 실적과 강의규모의 적절성, 교사시설확보율도 내부 강점요인으로 판단된다.

○ 내부 약점요인

-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직원1인당 학생 수 등 교원영역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연구영역 중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국외 특허 등록 실적이 국립대학 중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등 국제화 여건 영역이 타 국립대학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 창업 강좌 수, 창업 재정 지원 등 산학협력영역 중 창업에 관한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값이 낮게 나타났다.
- 교육비 환원율, 기부금 비율 등도 약점요인으로 평가된다.

○ 대외환경 기회요인

-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전기금 유치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고,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이 높아 취업 실적이 강화되는 만큼 상승추세로 볼 수 있다.

○ 대외환경 위협요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크게 감소하고,
- 교외연구비 수혜실적이 국립대학 중 하위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 창업 강좌 수나 재정지원 실적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평가결과 활용계획

○ 강점-기회요소를 통한 활용계획

- 취업률이 상승추세에 있으며, 학생에 대한 평가항목이 향상추세이므로 지속적으로 대외지표를 강화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대회) 논문 게재(발표) 실적 및 저역서실적 등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타 국립대학도 동일한 상황으로 교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발전기금의 유치 노력과 교수, 학생, 대학 교류 확대 등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연계지표의 상승 유도 및 대학 경쟁력 향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 약점-기회요소를 통한 활용계획

- 보다 나은 교육여건 및 환경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써, 장학금, 기숙사, 학생상담, 도서 확충 등 학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을 향상을 위한 재원마련 및 예산 배분과정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
- 대외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국제화 평가항목 즉,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교환학생 비율, 해외과건 학생 수 확대가 필요
- 지속적인 외부 평판도 및 내부역량강화를 통하여 발전기금 유치 노력 강화

○ 강점-위협요소를 통한 활용계획

- 취업률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대학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취업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및 내실화가 필요
- 교육과정의 능동적 변화관리를 통하여 교육만족도 향상

- 연구실적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타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상황으로 연구업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방안 마련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규모 축소 및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 감소에 따른 원인과 대책 마련 필요
- 약점-위협요소를 통한 활용계획
 - 재정확충 방안 마련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학생복지 개선, 교육지원 확대
 - 연구실적 성과 거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전임교원 확보에 대한 능동적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류 확대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등 교류 협력 연계 강화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1) 평가지표 영역별 개선사항

○ 학생 영역

학생 영역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학생 비율, 학부생 비율 4가지의 지표를 평가하였다.

이 중 신입생 충원율은 2013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중도탈락학생비율은 2013년에 비하여 증가한 지표임. 이에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학생 상담제도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취업에 대한 교과과정 개설 확대, 창업지원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재학생 충원율과 학부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지표로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교원 영역

교원 영역은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직원1인당 학생 수 3가지의 지표를 평가하였다.

교원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대학의 내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도 전국 국립대에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내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 등 중·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교육여건 영역

교육여건은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강의 규모의 적절성, 소규모강좌 비율, 대규모강좌 비율, 도서관 연간자료 구입비 7가지의 지표를 평가하였다.

교육여건은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난 영역이다.

취업률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201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지표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타 국립대학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연계되는 지표이므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저조하여 동시에 낮게 평가 되는 지표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도 함께 높여가도록 노력해야한다.

소규모강좌 비율은 타 국립대학에 비해 높게 평가된 반면 대규모강좌 비율은 낮게 평가되어 강의 규모의 적절성이 타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강의 규모를 고려한 강좌 개설 등 강의규모에 대한 평가지표 값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연구 영역

연구 영역은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SCI급 논문 실적, 저역서 실적, 교내외 연구비, 기술이전건수 및 수입료,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 국외특허 출원 및 등록 10가지의 지표를 평가하였다.

국내·외 논문게재실적, 저역서 실적 등의 평가지표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유지되거나 다소 향상되었다.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SCI/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지원증대,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시에도 주저자의 경우에 게재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교수 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중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특허출원/등록 실적 및 기술이전 실적, 교외연구비 수혜실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학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 재정 영역

재정 영역은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납입금 비율, 기부금 비율 5가지 지표를 평가하였다.

교육비 환원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타 국립대학과 비교 시에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총교육비를 높여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는 방안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학금 지급율은 타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고 따라서 타 국립대학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지표 값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업강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 수 있다.

○ 산학협력 영역

산학협력영역은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 비율,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창업 강좌수, 창업 재정지원, 창업공간지원, 창업지원인력,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11가지의 지표를 평가 하였다.

산학협력 영역은 배점 150점 중 28개 국립대학 비교 취득점수 130점, 19개 지역중심 국립대학 취득점수 126점으로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학협력 영역 평가지표는 LINC사업과도 연계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항상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영역으로 현재 해당영역의 전반적인 지표값이 타 국립대학과 비교했을 경우 상위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창업 강좌 수, 창업 재정 지원은 낮게 평가되고 있어 창업 관련 강좌 개설을 증가시키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화여건 영역

국제화여건 영역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교환학생 비율, 해외 파견 학생 수,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6가지의 지표를 평가하였다.

국제화여건 영역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외국인 전임교원은 전년도 2명에서 2014년 1명으로 줄어들었으므로 국립대 전체 순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교환학생 비율 역시 2013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우리대학의 약점인 국제화여건 영역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화 여건은 대외평가지표의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대학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 기타 영역

기타영역은 교사시설확보율, 기숙사수용률 2가지의 지표를 평가하였다.

대학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우리대학의 교사시설확보율은 타 국립대학과 비교 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수용률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체평가결과 활용계획

- 최근 대학의 평가가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대외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분석하여 공통 지표위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고, 28개 전국 국립대학과 19개 지역중심대학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 지표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부역량의 강점 및 약점과 대외환경의 위협과 기회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 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방향을 확인하였다.
- 2015년 개발한 지표를 통하여 평가를 수행한 결과와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의 결과는 대외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비한 사전 진단으로 지표 값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내부역량과 대외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평가의 결과는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교내에 전파하고, 평가결과를 공유하도록 유도
 - 부문별 진단평가는 선의의 경쟁유도로 대학의 대외경쟁력강화 및 대학발전 견인

- 대학의 자체평가결과 공시를 통하여 교육수요자에게 대학의 정확한 정보 제공
 - 자체평가 결과 공시를 통하여 대학의 실상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대학의 자체능력과 장점을 홍보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대학 내의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개선·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지표 관련부서의 지표 향상방안 마련 및 시행 도모
 - 취약지표 및 지표향상을 위한 관련부서의 목표설정과 추진
 - 당해연도 평가결과는 반드시 차기 평가 시에 점검되고 향상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장단기 지표향상 방안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

- 향후 평가지표 개선을 통하여 대외평가와 학내평가 결과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표관리 체계 구축